

[2주차 서세동점, 동아시아와 서양 열강1]

3차시 Page 8

영국 동인도회사도 광둥무역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도 차에 있음.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차를 유럽으로 수입해옴. 처음에는 영국이 그걸 사서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 차의 가격이 비쌌음.

동인도회사도 광둥무역에 뛰어들게 되면서 영국 내의 차 가격 자체가 인하됨. 상류층에서 많이 마시던 것이 가격이 접근 가능하게 되니 차 소비 자체가 영국에서 크게 증가함. 정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붙임. 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 영국 정부에 있어서도 차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됨.

당시 영국은 잘나가고 있던 상태, 해외 팽창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었음. 그러다 보니 돈, 군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음. 그런데 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 차에 대한 관세를 통해 이런 것들을 충당했음. 돈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 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시켜버림. 관세가 오르니 차값이 오름. 이미 차를 마시는 문화에 길들여진 영국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게 됨. 차를 밀수하는 일이 많아짐.

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게 되니 미국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들은 그렇지 않아도 본국으로부터 떼이는 세금이 많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북미 식민지들은 차를 마시려면 더한 돈을 내야함(영국 동인도회사의 것을 사먹게 되니). 영국 정부, 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게 되면서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됨. 보스턴 차 사건(외우지마)

북미에 있던 13개의 식민지들이 연합해서 독립을 선포함.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얻으려고 했던 영국 정부는 이윤을 잃을 뿐더러 북미의 식민지도 잃게됨. 고관세 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감. 다시 관세를 과감하게 내림(감세정책), 동인도회사 이윤도 확보해야 하고, 영국 정부도 차에 대한 세입을 다시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 기본적으로는 잃은게 많으니 그걸 보충해야 함. 중국 무역을 더 확대시켜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 차를 더더욱 많이(관세를 내리는 대신) 수입함.

차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데, 그때 당시의 국제무역의 화폐는 은화였음. 차를 많이 사다보니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감. 문제는 무역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했음. 영국이 중국한테 차를 많이 사주는데, 중국은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사주지 않음. 무역을 하고 싶은 쪽은 영국이었기 때문. 중국과 서양의 무역은 서양 국가의 요구로 시작한 것이었음. 광둥 무역에서 중국은 일방적인 수출 초과, 이득을 얻고 있었음.

Page 9

영국 동인도회사는 원래 인도와 무역을 했었음. 인도 국가의 벵갈 지방을 식민지로 획득함. 벵갈 지방의 지배권을 동인도회사가 장악하게됨. 식민지를 획득하는게 언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님. 식민지를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통치 비용이 발생함. 그러다 보니 벵갈 지방에서 이득을 바라고 식민지로 획득했는데, 생각보다 회사의 재정 부담이 증가했음. 식민 통치를 위한 재원 확보도 필요했음.

당시 벵갈 지방에서 자연적으로 많이 생산되던 제품 중 하나가 아편이었음. 왜 아편을 많이 생산하게 되었는가?

영국이 벵갈 지역을 식민통치 했을 당시 벵갈 지역의 생업은 수공업으로 생산하는 면직물이었음. 품질도 굉장히 좋았음. 영국도 산업혁명 이후 방직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됨. 면 제품도 공업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기계 방식을 통해서 면직물을 자체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대량생산하게 된 것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 됨. 식민지는 본국의 제품을 소비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큼. 그러다 보니 인도에 이걸 팔아야 함. 수공업으로 생산한 면직물과 기계로 대량생산한 면직물 중 기계로 대량생산한 것이 가격경쟁력이 있음. 싼 면직물이 인도에 수출되면서 인도 시장에서 먹히게 됨. 벵갈 지역의 전통적인 생업, 수공업으로 하는 면방직 기술이 거의 전멸상태에 빠지게 됨. 그러면 애네들한테 다른 생업을 줘야 함. 동인도회사가 아편을 심으라고 함. 우리가 사준다고 함. 아편 전매제도를 인도 벵갈지역에서 실시하게 됨. 이렇게 해서 전매한 아편을 영국 동인도회사는 중국에 판.

이렇게 아편 무역을 통해서 벵갈 지역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시켜주고, 식민 통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함. 또 아편을 중국에서 은화로 사주니 은화도 조달됨. 여러가지로 좋은 것이 많았음. 거기다 영국 본국에서 생산하는 면제품의 판로도 안정적으로 확보됨.

동인도회사는 벵갈 지역에서의 아편의 생산 관리의 중요한 한 축이었음. 자기들이 전매하다 보니 해외 시장의 개척, 판로의 개척에 나서게 됨.

청나라 정부가 아편을 금지시킴. 영국 동인도회사는 아편을 팔고 싶었음. 청나라에서 금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편이 공공연하게 반입이 됨. 아편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은화가 중국에서 빠져나가게 됨. 그 결과 광둥무역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수출 초과 현상이 19세기 초를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함. 아편 밀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1820년대였는데, 그 때부터 완전히 수입 초과로 역전됨. 매년 은화의 해외 유출이 증가함, 중국 경제 자체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됨.

Page 10.

Page 11.

아편이 만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중국은 아편 무역에서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음.

사람들 자체가 마약에 빠져있었음.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는, 아편 자체가 서민들의 생활고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됨. 은 때문에. 중국은 화폐가 따로 있었음.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이 동전을 사용함.

하지만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낼 때는 이 동전을 사용할 수 없음. 세금은 은화로 치뤄야 했음. 은의 값은 항상 바뀜. 국내의 은 보유량에 따라서. 세금을 은으로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올린게 아님에도 은값이 오르면 세금이 오름.

중국에 은이 유입되는 양은 굉장히 많았음(아편 수입량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편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은을 아편값으로 많이 치루게 됨. 은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들게됨. 서민들은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게됨. 이런 현상은 1830년대로 접어들면서 절정에 치닫게 됨.

청나라 정부에서는 아편 금지령이 존재했지만 밀수흡연 자체를 더욱더 강력하게 근절해야 하는 강경책을 펼쳐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됨. 아편을 근절하기 위해서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임치서.

Page 12

[3주차 동아시아와 서양 열강 2]

1차시 Page 10

중국은 아편무역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입음. 왜?

기본적으로 은 때문이었음.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음. 중국에서는 당시 19세기에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화폐(동전)를 사용했음. 하지만 세금을 바칠 때는 은화로 치뤄야 했음. 그런데 아편 밀수가 성행하다 보니 아편을 살 때 은을 주고 삼. 은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게 되면 중국 국내의 은 보유량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게 됨. 그럼 은 값이 오름. 그럼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오름. 은을 사서 세금을 치뤄야 하는데 은 값이 오르니까. 이러한 현상이 정점을 찍은 것이 1830년대 이후. 그렇기에 청 정부는 아편 밀수, 흡연을 근절하기 위한 강경책을 낼 수밖에 없었음.

Page 11

영국 상인들은 왜 중국에 아편을 팔기 시작했을까?

영국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던 제품이 차 었음. 차를 수입하면서 영국의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감. 이걸 영국도 만회해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수출할 물건을 생각함. 그렇지만 중국에 팔만한 물건이 없었음. 수입할 차를 결제할 은이 부족한 영국은 그 대체제로 아편을 수출해서 은을 확보하기로 함. 그러면서 모든 사회적 문제가 시작됨.

Page 12

아편 거래가 진행되는 본산은 광저우 지방. 광둥무역이 이루어지는 곳, 서양 선박이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아편거래의 본산인 광저우에 직접 들어가서 근절시켜야 할 필요가 생김.

도강 황제는 임칙서를 정권 대신이라고 하는 흠차 대신에 임명해서 광저우로 파견함.

임칙서는 광저우에 도착해서 아편을 밀매하는 사람과 흡연하는 사람을 모두 투옥시킴.

아편을 몰수하고자 3일동안 영국 상관을 봉쇄함. 당시 영국 상관의 대표자로 있던 사람은 해군 대령인 찰스 엘리엇이었음. 엘리엇은 임칙서에게 아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절차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함.

그런데 상인들은 아편을 돈을 벌기 위해 가져왔는데, 돈을 받지 않고 임칙서에게 주면 손해를 보게 됨. 엘리엇은 아편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상인들과 청 정부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엘리엇은 아편을 가지고 온 상인들에게 보상을 약속할 수 밖에 없게 됨. 영국 정부가 보상을 하겠다고 설득해서 상인들로부터 아편을 인수해서 중국측에 전달함.

엘리엇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영국 정부에 알려야 했음. 우리도 여기에 대항하는 무력이 있음을 알려야 하니까 영국 군함을 광둥 해역에 파견해줄 수 있냐고 요청함. 영국 정부는 9월에 광저우에서 활동하는 영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군함을 중국 해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동인도함대 사령관이 영국 군함 3척을 이끌고 광둥 해역에 머물다 돌아가는 일이 생김. 이때부터 영국 군함이 중국 해안에 빈번히 나타나기 시작함. 이미 군사적 갈등이 어느정도 예견되고 있었음.

이렇게 아편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음. 아편을 몰수했기 때문. 아편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다시 무역을, 상행위를 정상화시키려는 의향을 중국 정부에서 보임. 임칙서가 무역 재개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엇가 여기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상태로 무역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었음.

아편을 몰수한지 2달 뒤쯤 홍콩쪽에 있었던 영국 선박의 선원들이 임유희 라고 하는 중국 농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남. 임칙서가 가해자들을 중국 정부에 인도해달라고 요청, 엘리엇는 거절함. 임칙서는 영국 선박에 대해서 물과 식량 공급을 중단, 나와서도 물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해안 지대에 있는 우물에 독을 투입함. 이런 식으로 영국측을 압박함.

이런 와중 엘리엇가 농민을 살해한 선원들을 재판함. 나온 결과가 벌금형. 중국의 법이나 영국 법을 적용해서 봤을 때도 너무나 가벼운 형량을 줌. 임칙서 분노함, 8월에 마카오 자체를 무력으로 봉쇄함. 마카오와 홍콩은 영국 선박들이 굉장히 많은 곳. 식료와 연료 공급도 중단시킴. 업무에 종사하던 중국인들도 철수시킴. 영국인들은 홍콩으로 피난.

치외법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분란 이런 것들이 아편 문제랑 뒤섞이면서 영국과 중국간의 긴장관계가 더욱더 커짐.

Page 13 호문포대

호문포대는 아편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지. 중국의 군사방어시설. 바다로 들어오는 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아편단속을 시작하니 영국 군함이 광저우 앞바다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보이니, 그런 무력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임칙서가 호문포대의 방어시설을 보강함.

Page 14 아편전쟁

가을은 광둥에서 정기적으로 교역이 열리는 시점. 이런 긴장관계들이 있다 보니 양국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 엘리엇가 아무도 광둥무역에 참가하는걸 자제하라고 함. 이 명령을 살짝 무시하고, 영국 상선(상업을 위해 온 선박) 한 척이 광저우 앞바다에 도착해서 주강(넓은 강)으로 들어가려고 함. 영국 함대가 상선이 주강으로 들어가는걸 제지하기 위해 배에서 사격을 가함. 중국 쪽에서는 우리에게 장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영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발포를 함. 양쪽간의 포격전이 벌어짐.

영국 군함의 포의 거리와 중국 쪽에서 바다를 향해 쏘는 포의 거리는 차이가 있음. 중국 포가 영국 군함까지 거의 가지 않음(기술의 차이). 포격전이 일어나고 나니 영국 군함이 순식간에 중국 함선 3척을 격침시킴. 중국 쪽의 피해가 심각했음. 임칙서는 무역 정지를 선포함.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영국 정부에게 보고함. 영국 정부는 중국에 원정군을 파견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이게 5월에 통과함. 6월에 영국군이 광저우 현지에 도착함. 광저우 항을 봉쇄한 다음 복상을 준비함. 본격적으로 아편전쟁이 시작됨.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게 된 조약.

1840년 6월에 영국군이 도착함. 광주항을 봉쇄한 다음 북상함. 그로부터 1년 뒤 전투를 치르면서 영국군이 상하이 지역을 점령. 난징을 다음으로 공략하겠다고 중국 정부에게 최후 통첩을 함. 중국 정부도 상황을 방관할 수 없게 됨, 8월에 양국간의 대표를 정해서 전쟁을 종료를 하기 위한 강화 교섭이 시작됨, 그 결과로 체결된 것이 남경조약(난징조약)임.

광저우 한 곳만 개방되어 있었는데, 5개 항을 더 개방함. 양행(독점적으로 상거래를 해야 하는 회사들)의 무역 독점을 폐지함, 영국 입장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상거래 보장.

원래는 상관에 감독관만 있었음(무역 감독관, 엘리엇트). 이제는 외교관, 영국 영사를 상주시킬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

남경조약은 승전국인 영국이 패전국인 중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 강요되었던 불평등 조약의 가장 시초가 되는 모델이 난징조약임. 협정 관세나 영사 재판권, 최혜국 대우 이런 것들.

Page 18 추가조항

조약의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수단, 무력적인 수단으로 군함도 경박시킬 수 있도록 함. 이런 것을 포함 외교, 또는 함포 외교라고도 함. 아편전쟁은 아편이라는 문제에서 촉발된 것처럼 보임. 하지만 결코 아편 문제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님. 여러가지 사건이 뒤섞여 있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세계관의 충돌이 있었음.

19세기까지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남방의 종주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나 민족은 오랑캐다 라는 관념이 뚜렷하게 있었음. 중화질서, 화의질서. 화의질서에 기반한 체제 하에서 종주국인 중국의 우위는 항상 절대적이라고 믿었음.

영국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 민족은 대소강약을 막론하고 동등한 주권이 있다는 데서 출발을 한다. 상호 관계는 항상 대등하게 맺어져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음(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세계관이 다름.

그렇기 때문에 아편전쟁은 중국인들이 주도해왔던 동아시아적인 세계질서, 화의관에 기반한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세계질서 그리고 영국으로 대변되는 서구식 국제질서간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중국은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 안에서 상당히 오랜시간 살아왔음. 중국의 통치자들은 해외무역을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음. 거래, 무역을 오랑캐들에게 베풀어주는 황제의 은전이라고 생각했음.

그런데 영국만 놓고 보더라도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성공해서 근대산업사회를 주도하고 있었음. 영국인들의 입장에서 해외무역을 경제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함. 자유무역의 가치 아래 무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념도 철저하게 달랐음.

아편 전쟁은 중국 통치자들의 전통적인 은전무역론, 무역은 베푸는 것이라는 세계관과 영국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자유무역론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충돌이기도 했음.

또 한편으로는 농경사회였던 중국의 전통적인 상업 경시도 한 몫 했음. 산업사회로 들어선 영국의 중산주의.

여러가지 중충적인 세계관의 충돌로 해석을 해야 함.

세계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조공책봉체제에 기반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 그와는 전혀 다른 서구식 국제 질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양자간의 충돌이 바로 아편전쟁이었다.

남경조약을 체결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

남경조약은 아편전쟁의 결과로 체결됨. 그렇게 한번 서양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중국은 다른 서양 국가들과도 유사한 내용의 통상조약을 체결하게됨. 미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중국의 서양 무역의 제도였던 광둥무역체제는 아편전쟁 이후 자연스럽게 소멸됨.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조약체제에 의거하는 서양의 자유무역제도가 성립됨.

예전처럼 청나라로부터 오랑캐의 하위의 대우를 받지 않고, 새로운 서양식 조약이라는 것에 깔려 있는 자유무역, 대등한 외교관계라는 것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함. 서양 국가들은. 기존의 광둥무역 체제 하에서는 무역이 황제의 은전, 중국의 시혜적인 성격의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계약에 의한 상호간의 권리로 보장되었다고 봄.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협정 관세 제도, 영사재판권의 확립이었음. 이걸 특정 국가한테만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법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각각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설정됨.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쉽게 수긍해 줬던 이유는?

나름대로 전통 시대의 중국적인 세계관에서의 이유가 있었음. 원래 황제라고 하는 자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준다. 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 그런 정신에 근거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조항을 수긍해주는 것에 있어 별다른 의식이 없었음.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 국가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조약 체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변혁임에도 불구하고 최혜국 대우를 받아들였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지, 이것이 근본적인 변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기존의 광둥무역 제도라는 것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줬다고 간주했고, 여전히 옛날 세계관에 근거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음으로 보임. 이것은 조약을 체결한 양자 간의 바라보는 관점, 태도의 차이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그로 인한 대립도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었음.

청나라는 항상 전통시대의 화의질서에 근거한 조공책봉 관계를 회복, 유지하려고 했던 반면 서양 국가들은 조약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강제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도 설정해놨음.

가장 먼저 드러났던 대립은 개항장이라는 공간에서 생김.

광저우 지방은 외국인들이 상거래를 위해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이었음. 남경조약 조항에서 봤듯이 이제 영사도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개항장이 설정됨. 그럼 항구지역을 벗어나는, 어디까지 외국인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

남경조약의 2조를 보면 영국인이 가족을 동반하고 개항장에 거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기존의 광둥무역 체제에서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고 상권도 벗어날 수 없었음. 그럼 거주지가 어딘지, 개항장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조약문 해석에 의한 문제가 발생함.

조약은 체결할 때 중국의 문자로 하나가 있고 영문으로도 조약문이 있음. 각국간의 언어로 만들고 교환함. 영문 조약문에는 cities and towns 라고 함.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시와 읍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중문 조약문을 보면 개항장을 항구 라고 표기함. 시와 읍, 항구는 전혀 다른 개념임. 그렇기 때문에 중국쪽에서 해석하기로는 영국인은 선착장이 있는 주변의 항구에만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석. 영국은 시와 읍, 광저우 시내에도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

이렇게 양쪽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니 1850년에 영국의 외상이 이 문제에 관해서 북경 정부에 문서를 보냄. 청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체? 상대방 국가의 외상이 문의했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직위의 관료가 회답해야 함. 정부에서는 직접 영국 외상에게 해답하지 않음. 광저우 지역의 총독을 시켜서 회답 요지를 전달하도록 함. 그 요지가 뭐였냐면, 당신이 제기한 문제는 광둥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흠차대신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니 그 사람과 교섭하라는 것이 회답문의 요지.

이런 회답은 문제가 되었음. 양쪽 국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할 것이라 서양 국가들은 생각함(세계관의 충돌). 그러면 흠차대신과 영국 외상이 격이 맞는 상대인가? 라는 문제가 생김.

북경에 있는 당국이 영국 사절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격에 맞다고 영국쪽에서는 생각할텐데, 북경 반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와 다름없이 계속 지방에 파견나가 있는 총독이나 흠차대신 같은 관료의 관할 하에 두려고 함.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됨.

이런 갈등이 일어난 시기가 중국한테 좋지 않은 시기였음. 중국 역사상 최대 반란중 하나인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난 시기. 청나라 정부 자체가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니 영국에게 나름의 기회가 옴. 이때 또하나 사건이 일어남. 애로우 호 사건.

애로우 호 사건

1856년 10월에 광저우 항에 정박하고 있는 배 중 홍콩에서 온 배가 있었음. 애로우 호. 선원이 12명 있었는데 중국 정부의 관원이 애로우 호의 선원 12명을 해적이라고 하면서 체포함. 당시 홍콩 총독으로 와 있었던(홍콩은 영국에 할양되어 있는 상태) 존 보링이 광저우에 영사로 와 있었던 해리 팩스가 여기에 대해 항의함.

애로우 호가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배인데, 중국 배인지 영국 배인지가 문제됨.

영국 측에서 항의하기론, 중국 관원이 영국 선박에 무단으로 올라와서 영국 국기를 끌어내리고 선언을 체포했다. 이걸 영국 정부에 대한 모욕이고 불법이다. 사과하고 체포한 선원의 신변을 인도하라고 주장.

중국 측에서는 애로우 호는 영국 국기를 개항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 애로우 호의 선장은 영국인이었는데 배의 주인(선주)와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다. 그러니 우리 관원이 올라가서 이들을 체포한 것은 불법도 아니고 영국 정부를 모욕한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

이 배의 등록은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데 홍콩은 영국에 할양되어 있음. 그러면 이것이 영국 배인가? 이게 애매함. 배의 주인은 중국인이니까. 이때 중국 측에서 놓치고 있던 것은, 애로우 호라는 배는 홍콩에 등록된 선박이었음. 그런데 등록 기간이 지난 상태였음. 무효인 상태. 그런데 중국이 이것 몰랐음. 그런 상태에서 양측이 대립, 교섭이 결렬됨. 10월 말 경에 영국군이 광주시를 공격, 다음 날은 관청까지 점령함.

영국은 프랑스 정부에 공동출병 제안, 프랑스 정부도 수락.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과 난징조약 이후에 차례로 조약을 맺었던 다양한 국가들은 이때를 기회로 청나라와의 조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미국, 러시아 대표들도 홍콩에 가서 합류함.

영국과 프랑스가 텐진 지역까지 복상을 해서 진압하니 청나라 정부도 진지한 교섭을 시작함. 영국과 프랑스 대표는 무력을 배경으로 굉장히 강경한 담판을 벌일 수 있었고, 여기에 편승한 미국과 러시아 대표 역시도 조약 개정을 위한 시도에 성공함. 그렇게 해서 체결된 것이 텐진조약임.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와 체결.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남경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거기서 기인한 양국간의 충돌은 사실 노정되어있던 상태. 그런 갈등 끝에 영국 정부는 한번 더 무력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애로우 호 사건을 통해 실행에 옮김. 이 일련의 과정을 2차 아편전쟁이라고도 부름. 그 결과로 체결된 것이 텐진조약임.

텐진 조약이 조인되면서 완전한 서양 열강 중심의 조약체제, 중국적인 세계관이 끼여들 여지가 있었던 빈공간들이 없어짐. 불평등 조약의 시대가 완전히 문을 열게 됨.

중국과 서양의 관계에서, 서양과 동아시아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중국의 조공책봉 체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됨.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힘으로 강요하였던 불평등 조약 체제가 완전히 확립됨. 텐진조약이 체결되면서.

서양 열강 중심이 주도하는 새로운 체제(우리 입장에서는 불평등 조약 체제)에는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들어가게 됨(미국에 의해 비슷한 방식으로).

[4주차 강화도조약과 개항]

1차시 Page 2

한국이 개항하기 이전에(19세기에) 서양국가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가?

18세기 후반 이후의 기록을 보면, 이상한 모양의 배(이양선)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음. 왜 18세기 후반 이후에 이양선이라고 하는 서양 선박들이 조선에 자주 출몰했는가?

지리상의 발견 이후 서양 열강의 극동에서의 활동 무대는 주로 중국과 일본이었음. 조선 자체도 서양의 관심에서 아주 벗어나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는 이양선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조선 주변의 해역에 대한 탐사, 측량을 목적으로 연안에 나타나곤 했었음. 19세기 중반 무렵으로 가면 그 목적이 달라짐. 조선의 해역을 탐사하거나 측량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함. 당시 조선은 이런 의사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번방(조공책봉의 관계가 조선의 대외관계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중주국인 청나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앞세워서 당시 상선의 통상 요구를 거절함.

오페르트 도굴사건) 오페르트는 동양에 관한 관심이 많았음. 186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선에 통상을 요구, 조선은 거절. 다음 3차 방문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양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함. 아버지의 시신을 미끼로 통상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19세기 중반 무렵쯤 되면 통상에 대한 요구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Page 3 병인양요

당시 고종이 왕이었지만 집권했던 것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들을 박해하는 병인양요가 일어남.

이때 당시의 조선인 천주교도들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 와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들도 함께 처형함.

청나라 정부에게도 항의를 함, 조선에 대해서는 선전포고함. 응징 원정이 진행됨.

조선정부는 화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였기 때문에 강화도 수비에 실패함. 정부는 군을 보내고 양헌수 임명, 출정시킴. 프랑스 군은 정족산성의 지형지리나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격전을 벌인 결과 프랑스 군이 패함.

프랑스의 원정은 실패인가 성공인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 돌아간 로즈 제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애초에 선교사 학살 때문에 간 것이다. 거기에 대해 응징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

외교관이었던 벨로네는 실패로 간주. 수교 관계가 전혀 없는 조선으로 가서 개항을 위한 협상은 벌이지도 못하고 돌아옴. 군사적인 측면에서 봐도 정족산성에서 패한 직후 함대를 철수함. 이것이 성공한 원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원정의 본래적인 목적이었던 종교적 견지에서 볼 때는, 조선 원정의 지상 목표는 선교사 학살에 대한 보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복이 되었는가 라고 할 때 그 이후 조선에서 천주교를 곧바로 공인하지도 않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남음.

Page 4

Page 5

화력을 앞세워서 해전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성공함. 하지만 막상 강화도를 점령하고 나서 수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내부 지형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고 게을리 파악했음. 그렇기 때문에 화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상륙하고도 조선군의 기습에 대처하지 못함.